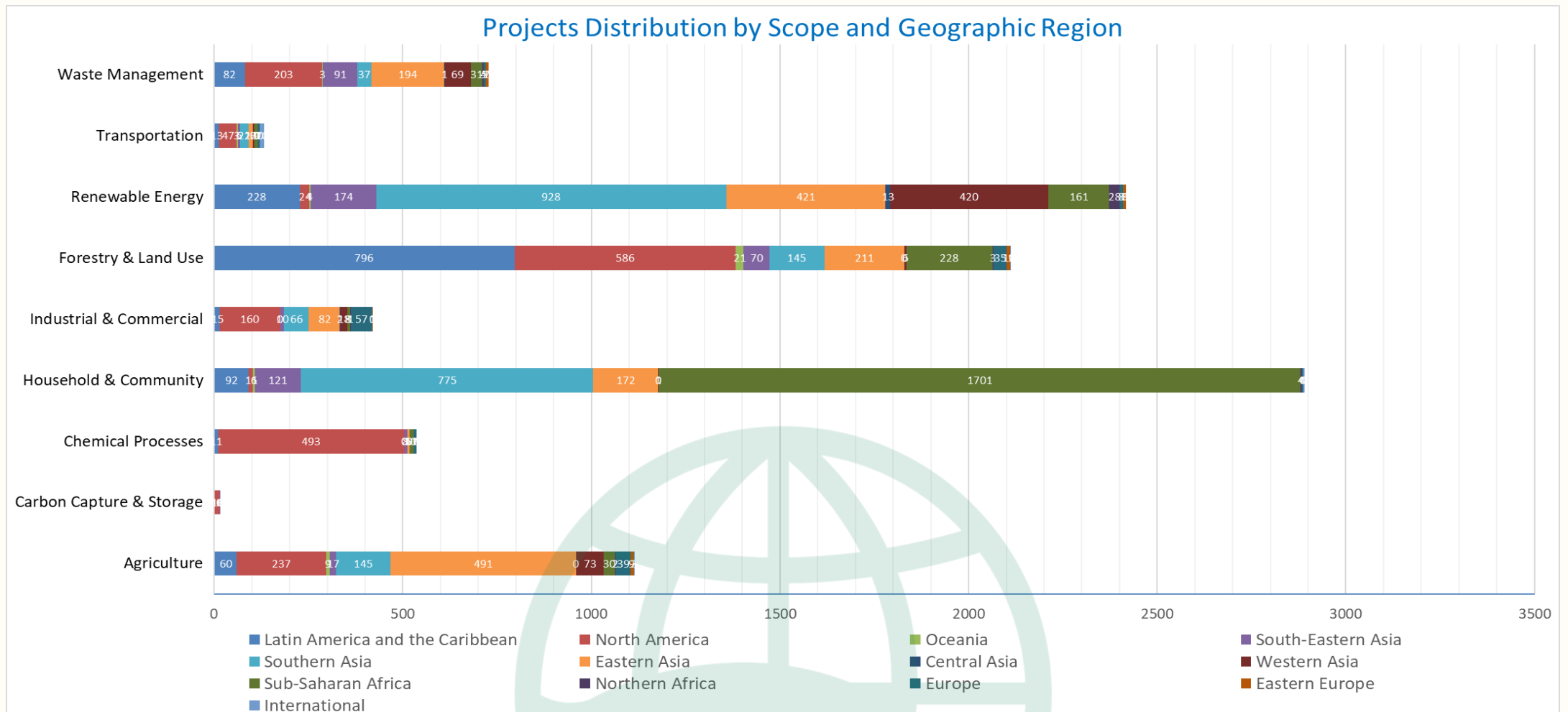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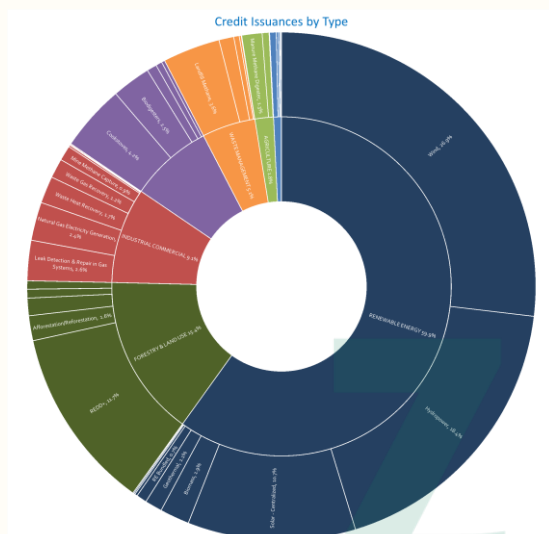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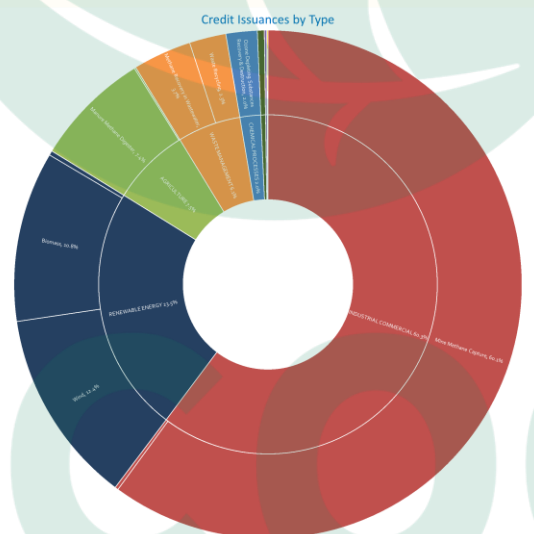
## 산업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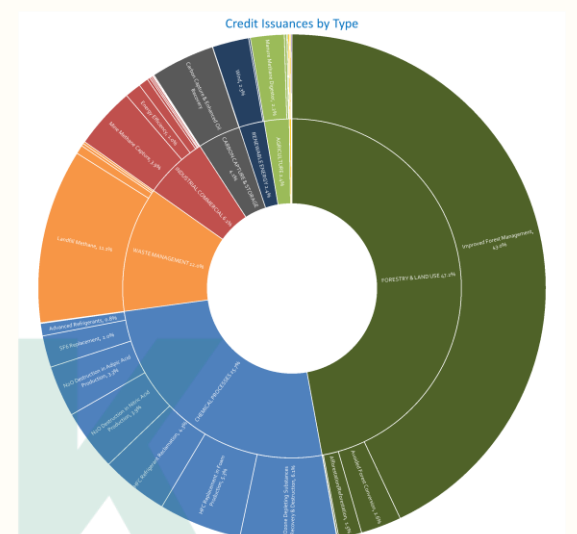
### Asi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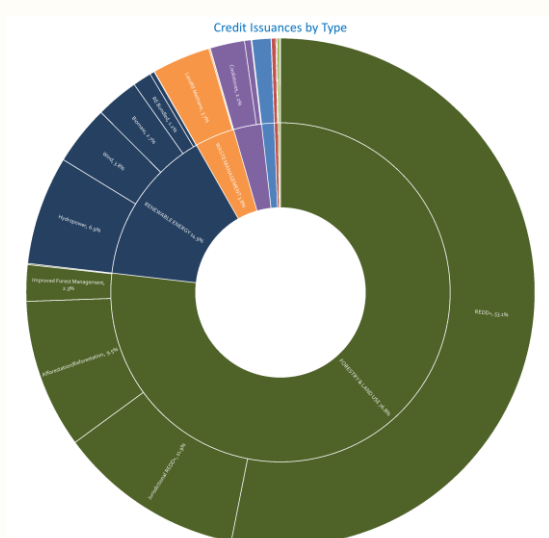
### Europ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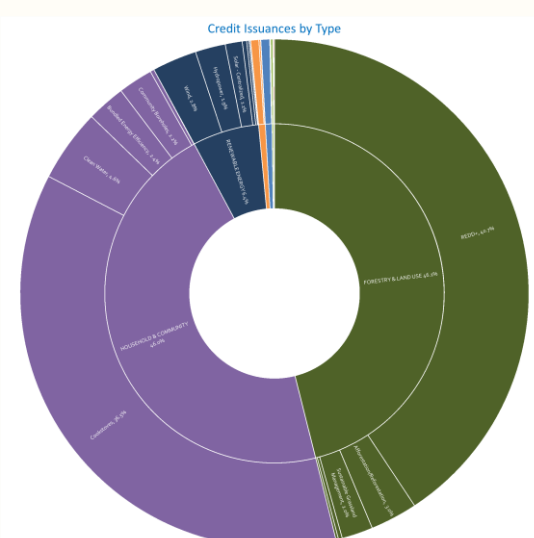
### North Americ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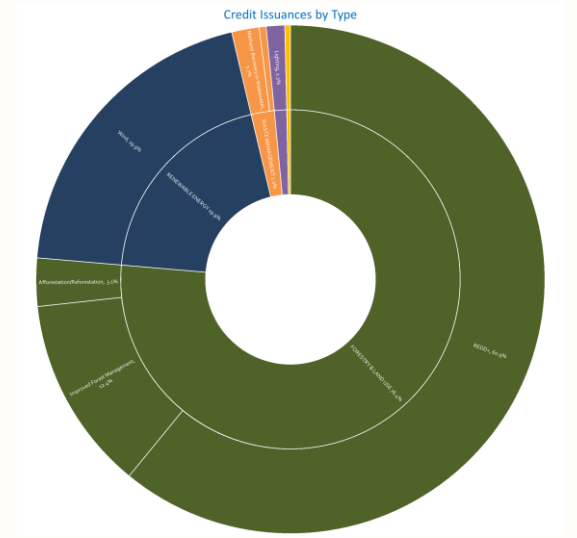
### Latin America



### Africa



### Ocean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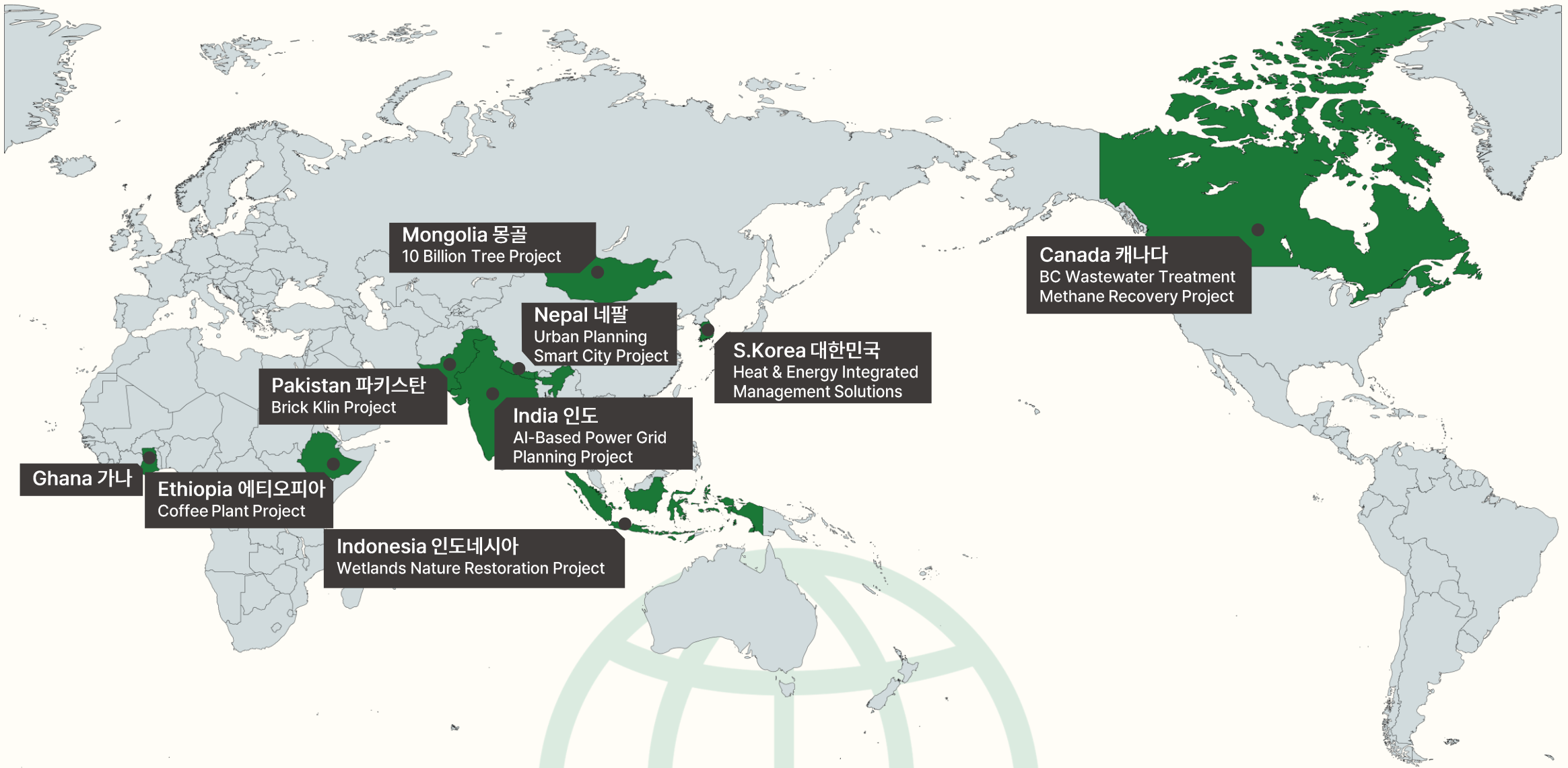


Source: Barbara K Haya, Tyler Bernard, Aline Abayo, Xinyun Rong, Ivy S. So, Micah Elias. (2025). Voluntary Registry Offsets Database v2025-04, 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, 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. Retrieved from: <https://gspp.berkeley.edu/faculty-and-impact/centers/cepp/projects/berkeley-carbon-trading-project/offsets-database>. By clicking the above link you agree to cite the database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terms.

## 탄소 배출권 시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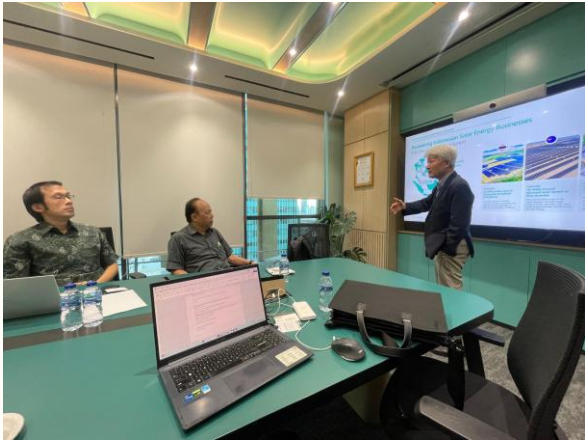
EU ETS	UK ETS	KOR ETS	CA(USA) ETS	CAN ETS	CHN ETS	NZL ETS
€71.67 (-1.82%)	£47.71 (+32.60%)	₩8,390 (-9.78%)	\$25.87 (-18.93%)	\$95 (fixed 2025)	¥74.08 (-24.18%)	\$57.88 (-5.67%)

자국 사업개발 현황



SUN GROUP 현지 방문: 국제 탄소시장 진출 전략 논의

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SUN Group 현지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현황 및 SUN Group이 추진 중인 동남아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의 국제 탄소시장(특히 Article 6 기반 ITMO) 진입 및 탄소배출권 창출 전략에 대해 논의



관련뉴스

EU, 기후목표에 국제 탄소배출권 첫 포함

유럽연합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90% 감축하는 법적 기후목표를 제안하면서, 국제 탄소배출권을 처음으로 공식 포함했다. 2036년부터 전체 감축량의 최대 3%를 해외 크레딧 구매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 유연성을 확보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, 기후 자문기구와 시민사회는 국내 감축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. 해당 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.



by Kate Abnett – Reuters [원문 보기](#)

해설: 국제 탄소배출권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가?



국제 탄소배출권은 선진국이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, 그 성과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. 기후금융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를 장점으로 내세우지만, 기준 미비, 이중 계산, 실제 감축 효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적지 않다. EU의 2040년 목표에 크레딧이 포함되면서, 제도의 유연성과 신뢰성 간 긴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. 제도의 실효성은 등록 기준과 감독 체계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.

by Kate Abnett – Reuters [원문 보기](#)



## 관련뉴스

### 독일, 지열 및 청정열 확대 가속화 위한 법안 제안

독일 정부가 지열에너지와 청정난방 인프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. 지열, 히트펌프, 열저장, 배관 등 핵심 시설을 '공익 우선' 사업으로 지정해 풍력·태양광과 동일한 인허가 체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. 각 관련 기관에는 심사 기한이 부여되며, 일부 요건은 면제 가능하도록 했다. 2045년까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는 국가 계획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.



By Reuters [원문 보기](#)

### 영국, 국부펀드 통해 탄소포집 프로젝트에 첫 투자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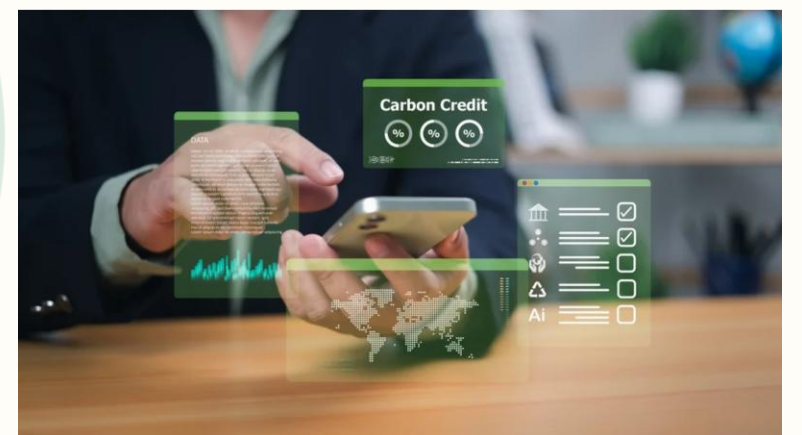


영국 정부가 국부펀드를 활용해 시멘트·석회 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포집 프로젝트에 2,860만 파운드를 투자한다. 해당 사업은 아일랜드해 하부에 탄소 저장소를 구축하고, 이를 연결하는 CO<sub>2</sub> 수송 파이프라인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. 약 1만2,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, 노동당 정부가 내세운 2050 넷제로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된다. 국부펀드가 실질 투자에 활용된 첫 사례로, 장기적으로는 CCS 클러스터 확대와도 연계된다.

By Reuters [원문 보기](#)

### S&P 글로벌-JP모건, 탄소배출권 토큰화 위해 협력

S&P 글로벌과 JP모건의 블록체인 계열사 Kinexys가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토큰화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. 배출권의 발행부터 추적, 소각까지의 전 과정을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자동화해 투명성 제고와 부정행위 방지를 노린다. 재조림, 직접공기포집 등 다양한 유형의 배출권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제 등록기관들과도 협력 중이다.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토큰화는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.



By Jennifer L - carboncredits.com [원문 보기](#)

### 터키, 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계획 승인



터키 의회가 국가 배출권 거래제(ETS)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법을 통과시켰다. 해당 법안은 시범 ETS 운영, 기업별 배출량 보고 의무, 위반 시 제재 조치, 탄소시장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다.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향후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단계로 평가된다. 터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53년까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.

by Patrick Sykes - Bloomberg [원문 보기](#)